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속에서 고요함을 택하다
CHOOSING CALM AND QUIET IN A WORLD OF ANGRY AND LOUD

By Rick Boxx

어느 민감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위해 토크쇼에 세 명의 게스트가 초대되었다. 사회자 그리고 두 명의 게스트 사이에 토론이 과열되면서 그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요즘 방송에선 매우 흔한 광경이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몇 분간 계속해서 고성이 오가자, 마침내 사회자는 그동안 말없이 조용히 있던 세 번째 게스트의 의견을 물으면서 말다툼을 정리했다. 그녀의 침착하고도 분별력 있는 말은 순간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질서 있게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차분한 그녀의 태도는 날카롭게 고함을 치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각종 소음이 사방을 둘러싼 오늘날, 누군가는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곧 승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속담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차분하게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대부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비즈니스와 전문직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로 몇몇 사람이 손꼽는 성경에서는 말의 장단점과 위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 15:1)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 16:23)

이와 같은 충고는 TV 나 라디오 토크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년 전, 사회 여러 지도자들이 하계 올림픽 개최를 제안하려고 어느 주요 도시에 모였다.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했을 때 달려오는

Three guests were invited to debate an emotional topic on a talk show program. The discussion among the two guests and the host became so heated that they began shouting at each other. (I know, this has become almost standard behavior on broadcast media these days, but I wanted to point out what happened next.)

Finally, after the shouting had gone on for several minutes, the host stopped the bickering by asking the third guest, who had been silent, for her opinion. Her quiet and thoughtful words suddenly brought order to the chaos. Not only that, but her demeanor also made her seem more credible than the others with their shrill shouting.

In our world today, with noise coming at us from all directions, some have decided that the one who shouts the loudest wins. It is another take on the adage, "the squeaky wheel gets the grease." But in reality, a calm and collected approach to communicating is still the most effective and most of the time, carries the most impact.

This is hardly a new revelation. The Bible, which some have considered as the greatest book on business and professional practices, has much to say about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pitfalls of the spoken word. For instance, Proverbs 15:1 states, "A gentle answer turns away wrath, but a harsh word stirs up anger." Another passage says, "A wise man's heart guides his mouth, and his lips promote instruction" (Proverbs 16:23).

Such admonitions are not limited to TV and radio talk show programs. Years ago, civic leaders gathered in a major cit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making a proposal to host the Summer Olympics. Discussion turned negative, with most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토론의 내용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

토론은 두 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회의 인도자는 그룹의 신입 멤버 중 한 사람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가 아직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테드, 아직 당신의 의견을 듣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기 마련입니다.”

불과 2-3분의 시간이었지만 테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모두의 시간은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과 같았다. 돌연, 누군가 말했다.

“테드의 말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회의의 흐름은 달라졌다. 잠언 14 장 4 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테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히 전달되었다. 즉, 거름 없이는 우유도 없다는 뜻이다. 일터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중요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부드럽게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던 이야기가 등장한다. 육체적, 감정적으로 매우 쇠약해진 엘리야 선지자는 사악한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다. 어느 정도 쉼을 얻고 회복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강한 바람 그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다.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2)

potential problems hosting such a massive event could cause.

After interaction had gone on for more than two hours, the meeting's leader turned to one of the newest members of the group. This individual had yet to offer any comments, so the moderator pointed asked, “Ted, you have not said anything. What do you think?” With everyone else in the room sitting quietly and expectantly, he calmly and quietly responded, “*Where there are no oxen, the manger is clean.*”

Only two or three minutes passed, but it seemed like hours as everyone else in the room pondered what Ted had just said. Suddenly, someone excited said, “You know, he's right!” And from that point, the whole course of the meeting changed. Ted did not tell them his reply was a direct quote from the Bible, Proverbs 14:4, but his meaning was clear: No manure, no milk. Or to put it into better workplace terms, to accomplish anything of importance, you have to be willing to confront inevitable challenges.

The Scriptures tell us God's preferred way of communicating with His people is to do so softly, not by shouting or giving dramatic messages. In 1 Kings 19, we read about Elijah, who had been used by God in a series of miracles. Afterward, physically and emotionally depleted, the prophet had fled upon learning the vicious queen Jezebel sought to kill him. After resting and being refreshed, Elijah had waited for God's next instructions. There came a powerful wind, then an earthquake. Verse 12 tells us, “*After the earthquake came a fire, but the Lord was not in the fire. And after the fire came a gentle whisper.*”

하나님께서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소통하기를 택하신 것이다. 일터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본 말씀의 적용점은 간단하다. 제품 또는 아이디어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큰 외침보다 부드러운 속삭임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기를 원하실 것이다.

God had chosen to communicate with Elijah through quiet words only the attentive prophet could hear. For all of us in the marketplace, the application is simple: To sell our product or idea, sometimes a gentle whisper is better than a shout. And if you pray about a major decision, maybe God wants you to wait for His whisper.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토크쇼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몇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면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How do you react when you observe two or more people in a loud, angry exchange – whether it is in listening to a talk show, or watching this kind of interaction during a business meeting?

2. 왜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야만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까요? 당신은 이에 동의합니까? 의견을 나눠봅시다.

Why do you think some people seem to believe the louder they yell, the more likely they are to persuade or influence those who disagree? Do you agree with this? Explain your answer.

3. 굉장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방식이 당신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왔나요?

Can you think of a time when you observed someone communicate a point effectively in a very calm, quiet manner? Has this type of approach ever been effective for you?

4. 조용히, 심지어 세미한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은 어땠으며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Has there ever been a time when God has communicated with you about something important in a quiet way, even a whisper? If so, what was that experience like – and how did you respond?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6:24, 17:14,28, 18:13,21, 21:23, 22:11, 25:11,15; 마태복음 5:3-8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잠 16:2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 (잠 17:14)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 (잠 17:28)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 (잠 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 (잠 21: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 (잠 22:11)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 (잠 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 (잠 25: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 (마 5:3-8)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 **복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